

광주 남구청 레슬링 '역시 전국 최강'

시·도대항대회 금 2·은 3 획득 정도경·박은영 2개대회 연속 금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청신호

광주시 남구청 직장레슬링팀이 전국 대회에서 강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 남구청은 최근까지 두 차례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따내는 등 레슬링 강팀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도경과 박은영은 2개 대회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내 내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남구청 직장레슬링팀(감독 박현서)은 "최근 충북 제천시 제천시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도경은 그레코로만 67kg급 결승에서 신재환(조폐공사)을 8-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은영은 여자자유형 55kg급 결승에서 권미선

(유성군청)을 10-0으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서창재는 자유형 92kg 2위, 양경엽은 자유형 61kg 2위, 황희찬은 자유형 57kg에서 2위를 차지했다.

남구청 레슬링팀은 지난 8월에 열린 '양정모 올림픽 제패 기념 제45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를 따내는 등 선전했다.

박은영은 여자 자유형 55kg급 결승에서 이가은(평창군청)을 10-0으로 가볍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서창재도 자유형 92kg급 결승에서 권도영(제주도청)을 10-0으로 제압, 금메달을 획득했다.

정도경은 그레코로만 67kg급 결승에서 김성민(강원도체육회)를 6-5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남구 레슬링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훈련이 어려운 실정에서 이같은 성적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기량이 상승하고 있어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박현서 남구청 직장레슬링팀 감독은 "선수들이



박현서(맨 왼쪽) 남구청 직장레슬링팀 감독과 선수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투혼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며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따내 광주 남구와 광주 레슬링의 저력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미니크 팀, 나달 잡고 ATP 파이널스 준결승 선착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사진)이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을 꺾고 시즌 왕중왕전 격인 2020 남자프로테니스(ATP) 파이널스 준결승에 올랐다.

팀은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디 오투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단식 조별리그 '런던 2020 조' 2차전에서 나달에게 2-0(7-6(9-7) 7-6(7-4))으로 이겨 대회 2연승을 기록했다.

팀은 1, 2세트 모두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메이저 대회인 20승 선수인 나달을 제압했다. 특히 1세트 타이브레이크 때는 2-5로 밀리다가 역전을 이뤄냈다.

팀은 "첫 포인트부터 마지막 포인트까지 대단한 경기였다. 특히 1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이긴 건 행운이었다"고 베테랑을 이긴 소감을 밝혔다.

지난 2월 호주 오픈 남자 단식 8강에서 나달에게 이겼던 팀은 이날 슬기로 나달 상대 첫 2연승을 기록했다.

이어진 같은 조 경기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6위·그리스)가 안드레이 루블료프(8위·러시아)를 2-1(6-1 4-6 7-6(8-6))로 제압하면서 팀의 준결승 진출이 확정됐다.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 중인 치치파스와 나달의 최종전 맞대결에서 슬리란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헤딩이 치매 유발' 연구결과 또 나와 일각선 유소년 헤딩 금지 주장

축구의 헤딩 동작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호프대학 연구팀의 최신연구 결과 축구선수가 치매에 걸릴 위험성과 헤딩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됐다.

이는 축구선수가 치매 등 뇌 손상에 따른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3.5배 더 높다는 작년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연구가 이뤄진 스코틀랜드에서는 12세 이하 유소년 선수의 헤딩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리버풀호프대 연구팀은 18~21세 아마추어 선수를 세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최대한 많은 공기가 주입된 공에, 다른 한 그룹은 공기가 최소 수준으로 들어간 공에 헤딩하도록 했다. 나머지 한 그룹은 허공에 헤딩하는 시범만 하도록 했다.

이렇게 세 그룹이 헤딩 동작을 스무 번 한 직후 연구팀은 선수들을 상대로 인지능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단단한 공과 덜 단단한 공에 헤딩한 선수의 80%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을 머리로 쳐낸 선수들에게서는 뇌진탕 징후가 감지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언어-공간 작업 기억(working memory)도 최대 20% 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스타일링대학의 다른 연구에서도 축구선수들이 코너킥 수준의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20회 헤딩한 직후 기억력이 41~67% 가량 줄었다가 24시간이 지나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리버풀호프대의 연구를 이끈 스포츠학자 제이크 애슈턴은 이런 결과에 대해 "매우 놀랐다"면서 "헤딩 동작의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960년대 잉글랜드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제프 허스트(78)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 "유소년 축구 선수의 헤딩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스트와 함께 1996년 월드컵에서 영국의 우승을 이끌었던 대표팀 선수 레이 월슨, 마틴 피터스, 잭 찰턴, 노비 스타일스는 치매를 앓다 숨졌다고 한다. 그는 "선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헤딩은 절대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8일 경북 김천시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0년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개인혼영 400m 예선에서 양석현(대구광역시청)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영암 튜닝카 레이싱대회' 성황리 마무리 170개 팀 출전 기량 겨뤄

'2020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단법인 대한모터스포츠협회(회장 조성철)가 개최한 이 대회는 지난 15일 영암 코리아 인터네셔널 서킷(Korea International Circuit)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170개 팀, 100여대의 전시장차, 600여명의 대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회는 모터스포츠 발전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영암군, ㈜ASA 등이 후원했다.

경기는 모터스포츠의 풀뿌리 종목인 짐카나, 드래그, 드리프트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됐다.

먼저 육상 100m 종목과 같이 자동차가 직선 400m를 경주해 순위를 정하는 드래그 레이싱은 250마력 미만, 250마력~350마력, 350마력 이상 무제한급 등 3개의 클래스에서 16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350마력 이상 무제한급 1위는 이준형이 거머쥐었고, 2위는 정찬균, 3위는 김정호가 차지했다.

250마력~350마력에서는 김형록이 1위를, 이원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 드래그 레이싱 경기 장면. <대한모터스포츠협회 제공>

익과 정현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250마력 미만에서는 김재성이 1위에 올랐고 김수목, 조성일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짐카나 경기는 목표 시간을 정해 그 시간의 근접 기록을 순위로 하는 타겟타임 방식으로 진행됐다. 짐카나는 가속, 감속, 코너링 기술 등을 다투는 종목.

한도현은 짐카나에서 목표시간에 0.03초 차이로 근접해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전인표는 0.07초로 2위를, 윤여환은 0.09초로 3위를 차지했다.

서킷을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드리프트는 2인 1조 팀전 배틀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됐다.

드리프트 결승전 1,2위 팀들은 박빙의 승부를 펼쳐 3번의 리매치 끝에 이준혁·김우겸이 1위를 차지했고, 이종태·정준용은 2위에, 이상화·윤경영은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테니스 내년도 파행 가능성 1월 호주오픈 개최 '불투명'

코로나19 탓에 2021시즌 테니스 대회도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남자프로테니스(ATP) 내년 첫 대회인 ATP컵과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을 비롯해 호주에서 열린 예정인 1월 국제대회들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고 1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들 대회를 주최하는 호주테니스협회(TA)는 지방정부가 대회 개최에 난색을 보여 참가 선수 입국 등 세부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

당초 ATP컵은 내년 1월 4일 시드니 등 3개 도시에서, 호주오픈은 1월 18일 멜버른에서 열린 예정이었다.

TA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수 이동 거리를 최대한 줄이고자 ATP컵 개최지를 멜버른이 있는 빅토리아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빅토리아주 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 주지사는 호주 오픈의 멜버른 개최도 아직 승인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TA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참가 선수들의 호주 입국 시점도 결정되지 않았다.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ATP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내달 중순에는 호주에 입국해야 한다.

ATP는 "TA로부터 선수 입국 일정을 잡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1월 대회 일정을 확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